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유가&금리 하락에 자사주 매입 가세 = KOSPI 6,800 선 회복

- 유가와 금리, 수급까지 가세하며 6,800선 지지, KOSPI 상승에 영향
- PCE 물가, 엔비디아 3분기 가이드언스와 계약 규모 체크 필요
- 반도체의 주도력 여전, 비반도체 업종으로도 순환매 확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News] 현대차: 2026년 CID 리뷰 & QnA 요약

- CID 통해 사업계획 재확인. 다만, 신규 계획/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
- 이벤트 모멘텀 소멸/3Q26 실적 부담에 따른 단기 주가 부진 예상
- 1) 미/한국 투자 구조, 2) 사업재편에 따른 지배구조변화 가능성 주목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유가& 금리 하락에 자사주 매입 가세 = KOSPI 6,800선 회복

- 유가와 금리, 수급까지 가세하며 6,800선 지지, KOSPI 상승에 영향
- PCE 물가, 엔비디아 3분기 가이드스와 계약 규모 체크 필요
- 반도체의 주도력 여전, 비반도체 업종으로도 순환매 확산

유가와 금리, 수급까지 가세하며 6,800선 지지, KOSPI 상승에 영향

최근 글로벌 증시의 최대 부담 요인이었던 금리 하락 반전. 10년물 미 국제금리는 6.5bp 하락한 4.638%, 30년물은 5.6bp 하락한 5.174%로 레벨 다운. 전일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 자금 조달에 TGA 활용 보도 영향. 장기채 금리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물론, 신규 국제 발행 부담 완화, 장기채 시장 유통 물량 감소 기대 유입. 금리 하락 반전

유가 역시 하락. 러시아 관영 통신 RIA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 중이고,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에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모두 3% 하락

여기에 수급 모멘텀 가세. 전일에 이어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기타법인 매수세가 지수 하단 지지와 분위기 반전을 주도. 여기에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축소, 매수 전환이 KOSPI 상승에 영향

PCE 물가, 엔비디아 3분기 가이드스와 계약 규모 체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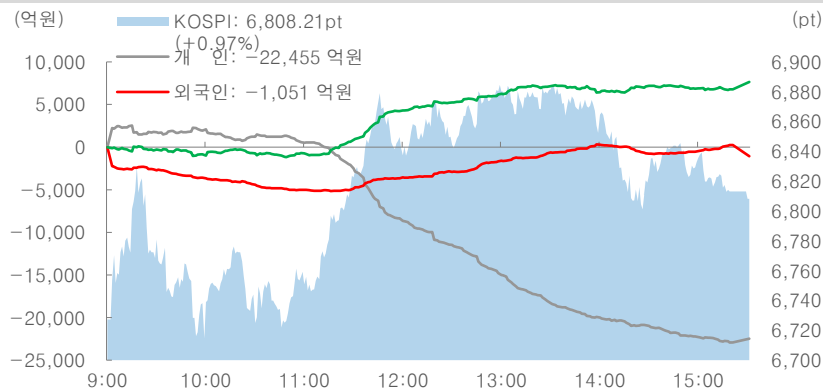
8/26 PCE 물가, 8/27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가이드스 주목. 현재 컨센서스는 1,040억 달러 수준이지만, 시장 기대치는 1,070 ~ 1,08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 동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와 영업이익률 75% 사수 여부가 관건. 차세대 플랫폼인 블랙웰 울트라 양산 수율과 랙 단위 데이터센터 배포 속도가 정상 궤도에 올랐는지 확인도 필요

반도체의 주도력 여전, 비반도체 업종으로도 순환매 확산

전주에 이어 이번주도 6,400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했고, 6,800선 회복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반등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 이 과정에서 반도체의 시장 주도력은 물론, 반도체 이외 업종들의 순환매가 동시에 진행 중. 반도체 + 낙폭과대 &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IT하드웨어, 전력기기, 조선, 방산, 2차전지 & 소재(유통), 화장품 등) 비중확대 유효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지분가치 인정받는 그룹주 위주 강세. 비반도체 업종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소식에 원전 업종이 연일 강세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전력기기, 소비재 등 상승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 중 흐름 (8/26)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차 (005380)

김귀연
박서영RA

gwiyeon.kim@daishin.com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40,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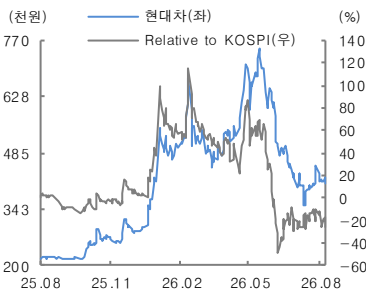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8.26)

408,000

자동차업종

KOSPI	6808.21
시가총액	96,74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44%
자본금(보통주)	1,15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50,000원 / 21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376억원
외국인지분율	24.62%
주요주주	현대모비스 외 11 인 30.67% 국민연금공단 7.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	-40.8	-33.0	86.7
상대수익률	0.0	-30.0	-37.9	-12.8



2026년 CID 리뷰 & QnA 요약

- CID 통해 사업계획 재확인. 다만, 신규 계획/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
- 이벤트 모멘텀 소멸/3Q26 실적 부담에 따른 단기 주가 부진 예상
- 1) 미/한국 투자 구조, 2) 사업재편에 따른 지배구조변화 가능성 주목

8/26 현대차 CEO Investor Day: 약속대로 진행중

CEO Investor Day(CID) 통해 사업계획 및 가이던스 재확인. 다만, 기존 대비 투자 계획 업데이트/가시적 성과 제한적이라 이벤트 소멸에 따른 주가 부담 예상. 3Q26 판매 부진/파업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예상되기에 단기 모멘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주가는 1) 미국 로보틱스 인 아메리카 지분 구조 및 투자 및 2) 국내 새만금/호남 투자 계획 구체화 여부, 3) 4Q26 신차 모멘텀 (그랜저/아반떼/투싼) 반영에 따른 판매 개선, 4) 그룹사 수익구조 재편에 따른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에 따른 반등 예상. 단기 이벤트 소멸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하나, 2026년 연말로 가며 재개될 Physical AI 전략 업데이트와 실적 개선에 주목할 필요

기존 가이던스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긍정적인 포인트는 1) '30년 OPM 타겟 9%+(기존 8~9%), 2) 생산능력 +127만대(기존 120만대), 3) HEV 판매 믹스 50%+(기존 50% ↓)로 상향했다는 점.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제네시스 35만대/xEV 60% 가이던스 유지.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중동/아태 지역이 11만대 하향된 반면, 중남미/중국이 상향. 주주환원(2025~27년 TPR 35%/최소 배당 10,000원/자사주 매입 최대 4조원) 가이던스 또한 유지

Physical AI 관련해서 1) 2028년 보스턴다이내믹스(BD) 로봇 미국 생산 개시/연간 Capa 3만대 확보, 2) 2028년 SDV 양산차량 판매 개시, 3) 2029년 100MW(GPU 50,000+)급 새만금 AI DC 운영 계획 또한 지속 유지

QnA 주요 내용: 지역별 사업전략 및 로보틱스/GM협력에 초점

Q. 로봇 투자 관련 지분 구조/계획 BD/RA(Robotics in America) 관련한 추가 펀딩/지분구조는 다양한 옵션 검토 중이나 확정된 시점/내용 없음. 결정 시 시장과 소통 예정

Q. 로보틱스 사업구조 및 로보틱스랩 스피노프 여부 당사는 로보틱스 사업 주요 투자자/지원사 역할에 초점. 설비/활용/전문지식(제조역량, 안전, 품질, 내구성, 비용관리, 대량생산) 지원 구조. 별도 법인 체제로 정관 변경 필요성 낮다고 판단. 로보틱스랩은 모빌리티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별도 사업 추진. 스피노프 관련해서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의사결정에 따라 시장 소통할 것

Q. SDV 롤아웃 지연 원인(엔비디아 협업/규제/실행 병목) (박민우 사장) 부임 이후 센서 셀렉션/자율주행 컴퓨터 구조 재점검/수정이 스케줄 지연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나, 현재 발표 일정(2027년 말 양산준비 완료 → 2028년초 판매 개시) 변동 없음

Q. 아트리아 AI 승계 방향과 센서 표준화 지연 사유 (박민우 사장) 부임 이후 기존 아트리아AI 단점 보완/재구성하여 계승. 센서 표준화를 전차종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신차 개발 리드타임 때문. 표준화 센서 최초 적용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계획. 광주 실증 사업으로 데이터 플라이휠 전 과정 forcing function 역할하고, 양산 차량 적용 통해 대규모 데이터 확보 가속화할 것. 2028년 롤아웃 체인으로 공용화 센서/컴퓨터 탑재 확대, 33년경 경쟁사 대비 누적 데이터 역전 전망. 구체 수치는 추후 별도 공유 예정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